# Credit Weekly

| 크레딧 | 조수희 | shcho@ls-sec.co.kr

## 국내 크레딧 시장 동향 (지정학 리스크, 수급 부담 완화)

### 중동 상황 관련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안 발표

미-이란 전쟁으로 지정학 리스크 확산 속에 정부는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금융시장반 실무점검회의를 가동하고, 13조원 수출·피해기업 금융지원 발표, 필요시 '100조원+@' 시장안정 프로그램 가동 의지를 발표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금융위 사무처장 중심 '관계기관 합동반'을 운영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장 불안 확산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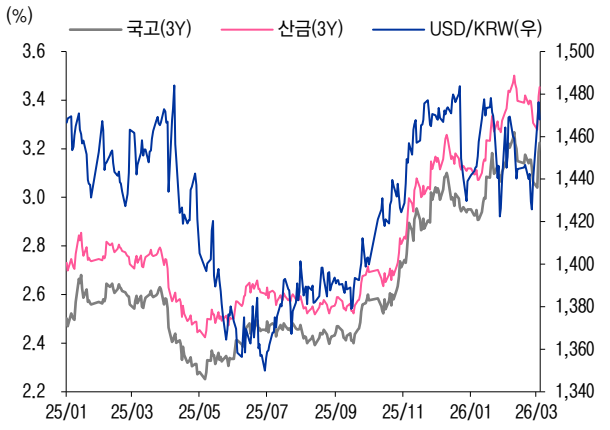
### 3월 회사채 발행 비수기, 주요 특수채 발행기관의 발행량 조정에 관한 협의 개최 등 수급 부담 완화

2월 말 금통위 전후 시장금리 안정 분위기가 조성되며, 회사채 수요예측도 전반적으로 선방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2월 중·후반 진행된 SK지오센트릭, SK인천석유화학 등 석유화학 관련 기업의 경우 발행물량은 모두 소화되었지만, 민평 대비 두자리수 오버발행되었다. 국고채(3Y) 금리가 3%를 상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리 레벨이 높아서 AA급 기업들도 대부분 5년물 이하로 발행하고 있으나, 5년, 10년 발행물의 경우 금리 메리트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KT, SK브로드밴드 등). 1~2월의 발행 러시, 금감원 공시 및 이사회 시즌 등으로 3월은 회사채 발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최근 연초효과의 빠른 종결 등으로 인해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국고채 및 공사채 발행 물량 조절 입장 등으로 볼 때, 공급 확대에 따른 수급 부담은 다소 완화된 상황이다.

### 미-이란 전쟁으로 유가 및 환율 등 매크로 변동성 확대되었으나, 금주 신용 스프레드는 보합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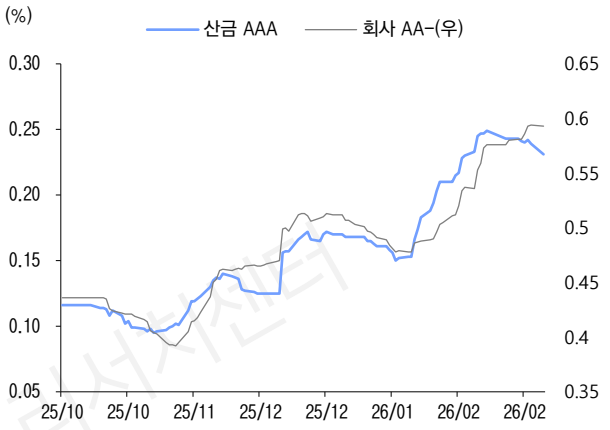
유가, 환율,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유가 상승(WTI $65/bbl 내외 → $72/bbl~ $75/bbl), USD/KRW 1,500 터치, 국고채 금리 변동성 확대 등). 전쟁 이후 국고 금리는 상승하는 반면 신용 스프레드는 아직 보합세이며, 2년 이하 특수채, 금융채 등 유동성 좋은 섹터는 축소 양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다. 크레딧물 수급이 국고채 대비 상대적으로 경직적이고, 지정학적 이슈는 경제상황과 금리 등 매크로 환경에 반영되면서 크레딧에 영향을 끼치므로 크레딧 시장의 반응은 다소 후행적인 경향이 있다. 전쟁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환율 및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혼재하여 국고채 금리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고, 회사채 및 여전채의 신용 스프레드는 국고채 금리의 하방리스크가 커지는 시기에도 축소 속도가 느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채 일부 섹터의 비용구조, 여전채의 자금조달비용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전쟁의 진행 양상에 따라 시장 환경이 달라 지겠지만, 전쟁이 초단기로 종결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매크로 불확실성 국면에서 국고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라 크레딧채권의 신용 스프레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높은 초우량채 단기물 선호 전략이 유효한 시기로 판단된다.

그림1 시장금리 및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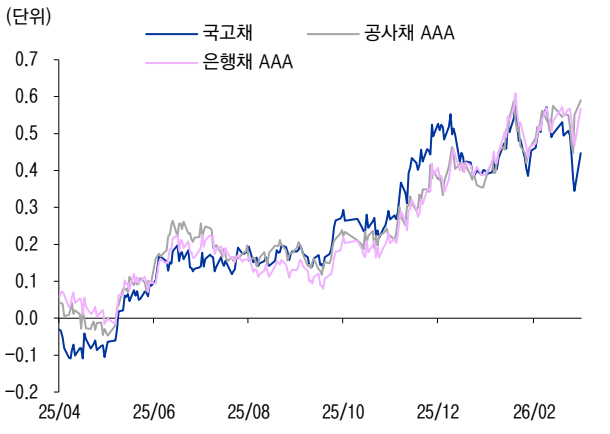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산금채(AAA, 3Y) 및 회사채(AA-, 3Y) 신용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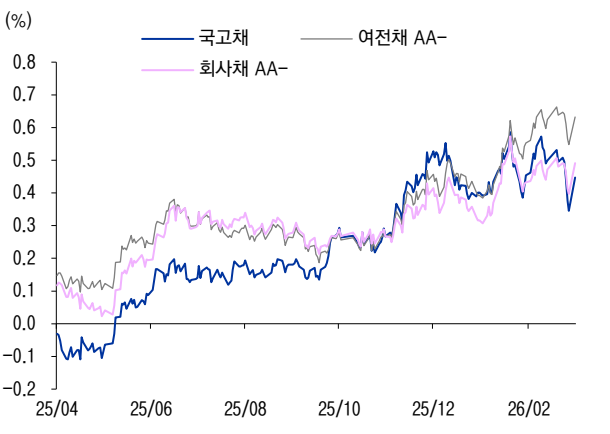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초우량물 만기별 금리차(GAP, 1Y vs. 3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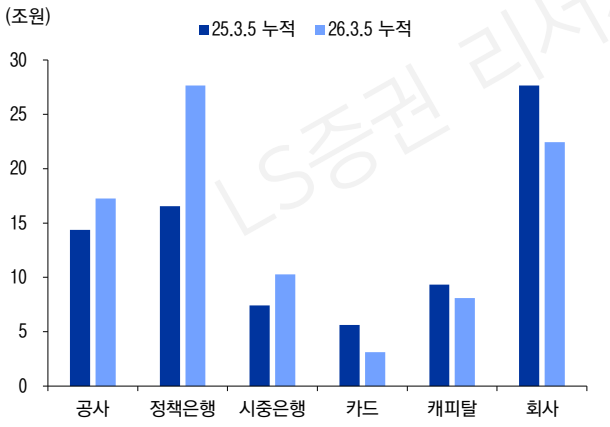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우량물 만기별 금리차(GAP, 1Y vs. 3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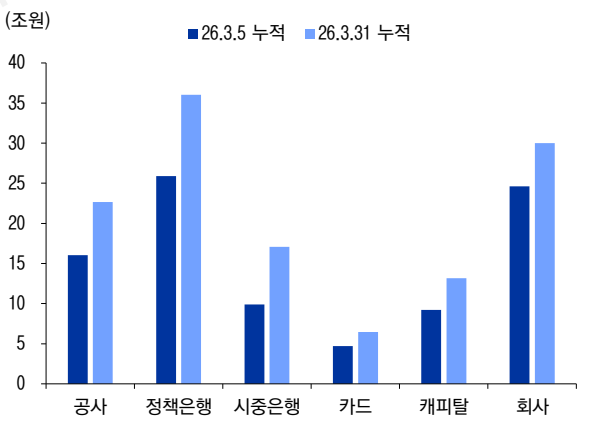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1분기 크레딧물 발행량 (1/1~3/5)




자료: 인포맥스,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1분기 크레딧물 만기금액 (1/1~3/5, 1/1~3/31)




자료: 인포맥스,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조수희).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